2009학년도
한남대학교 자체평가 요약 보고서

2009. 12.

한 남 대 학 교

목 차

Ⅰ. 자체평가 개요

1. 목적 및 추진방향 ····· 1

2. 발전목표 ····· 1

3. 추진경과 및 연차별 계획 ····· 2

Ⅱ. 자체평가 방법

1. 추진체계 및 조직 ····· 3

2. 평가시스템 및 모형 ····· 5

Ⅲ. 자체평가 결과

1. 총 평 ····· 8

2. 학문단위 평가 영역별 결과 ····· 9

Ⅳ. 평가활용 및 개선방향

1. 평가활용 ····· 15

2. 개선방향 ····· 16

2009 한남대학교 자체평가 요약보고서

Ⅰ. 자체평가 개요

1. 목적 및 추진방향

가. 목적

▣ 대학의 자율적 질 관리 강화와 사회적 책무성 제고

▣ 교육수요자(학부모, 학생, 기업체 등)에게 대학의 특성화된 정보 제공

▣ 대학 중·단기 발전계획과 연동된 대학자체평가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대학 경쟁력과 내실화 도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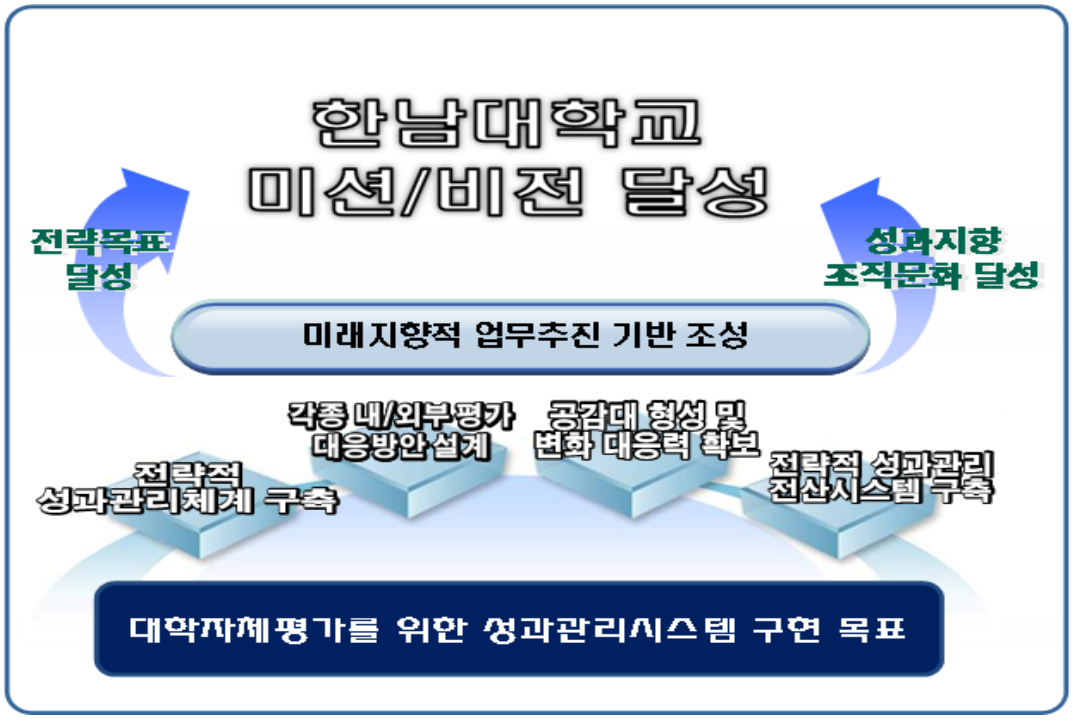
나. 추진방향

▣ 대학 특수성을 반영한 상시 대학자체평가 체제 구축

▣ 대학정보공시제와 대학자체평가의 연계

▣ 평가결과의 환류 시스템 활용, 대학 중·단기발전계획 추진 점검, 재정 배분, 구조조정 등 활용

2. 발전목표



3. 추진경과 및 연차별 계획

가. 추진경과

월 / 주요 추진내용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대학자체평가시행계획(안) 개발										
2009 학문단위평가 지침서 (안)개발										
시뮬레이션 테스트										
의견 수렴, 평가기획위원회 심의										
평가자료 수집										
평가 보고서 작성										
평가 보고서 심의(평가기획 위원회 심의)										
결과 보고 및 차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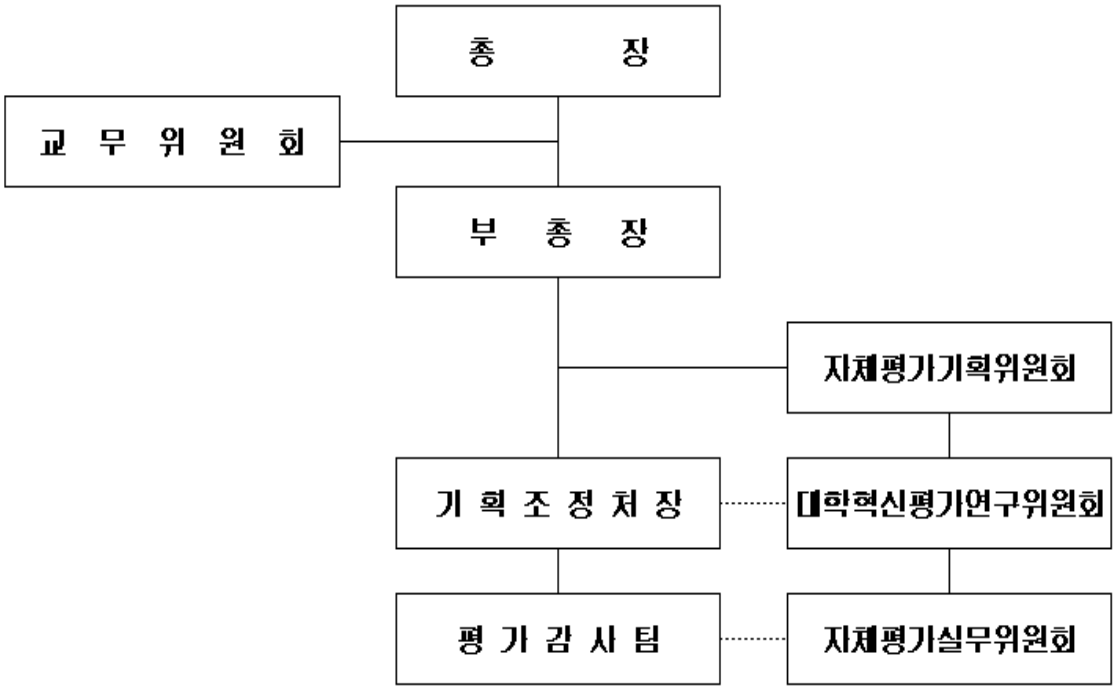
나. 연차별 추진계획

학년도	2008	2009	2010	2011	2012
목 표	· 평가체제 도입	· 시범평가 실시 · 성과관리 방식 평가체제 도입	· 성과관리방식의 자체평가 실시	· 성과관리방식의 자체평가 정착	자체평가체제 정착기
평가대상	· 정보공시 지표를 활용한 대학자체평가 시행 계획 입안 · 핵심관리평가지표 · 학문단위평가지표 · 일반관리지표	· 대학자체시범평가실시 및 우수학과 포상 · 성과관리 방식의 대학자체평가 시스템 도입 및 지표개발	· 대학종합평가 · 학문단위평가 (대학원포함) · 행정단위평가 (시범평가) · 교수개인평가 (시범평가)	· 대학종합평가 · 학문단위평가 · 행정단위평가 · 교수개인평가 · 직원개인평가 (시범평가)	

Ⅱ. 자체평가 방법

1. 추진체계 및 조직

가. 평가조직의 구성



나. 구성과 역할

1) 대학자체평가기획위원회(위원장 : 부총장, 부위원장: 기획조정처장)

- ○ 평가관련 기본계획의 수립 및 조정
- ○ 평가 규정의 제·개정 및 폐지
- ○ 평가기준, 방법 및 평가활동 지원
- ○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의 심의 확정

2) 대학혁신평가연구위원회

- ○ 평가지표 개발(대학관리, 학문단위, 행정단위)
- ○ 가중치, 목표수준 및 할당방법, 평가방법의 개선 연구
- ○ 자체 평가자료 취합, 분석, 평가실시 및 평가 보고서 작성

3) 대학자체평가실무위원회(위원장 : 전략평가팀장)

- ○ 행정단위 조직들에 대한 평가지표, 목표수준, 가중치 검토
  - 지표별 목표 수준의 난이도

- 평가대상 팀간의 형평성을 조정하기 위한 적절성 평가
- 경영목표와 연관성, 지표의 대표성, 가중치의 적정성, 목표수준의 도전성
- 부서별 평가지표의 개인별 가중치 배분

○ 대학혁신평가연구위원회에 대한 평가자료 제출 및 평가 연구활동 지원

○ 대학관리지표와 행정단위지표의 지속적 관리 및 대학자체평가의 제반 문제점 분석 및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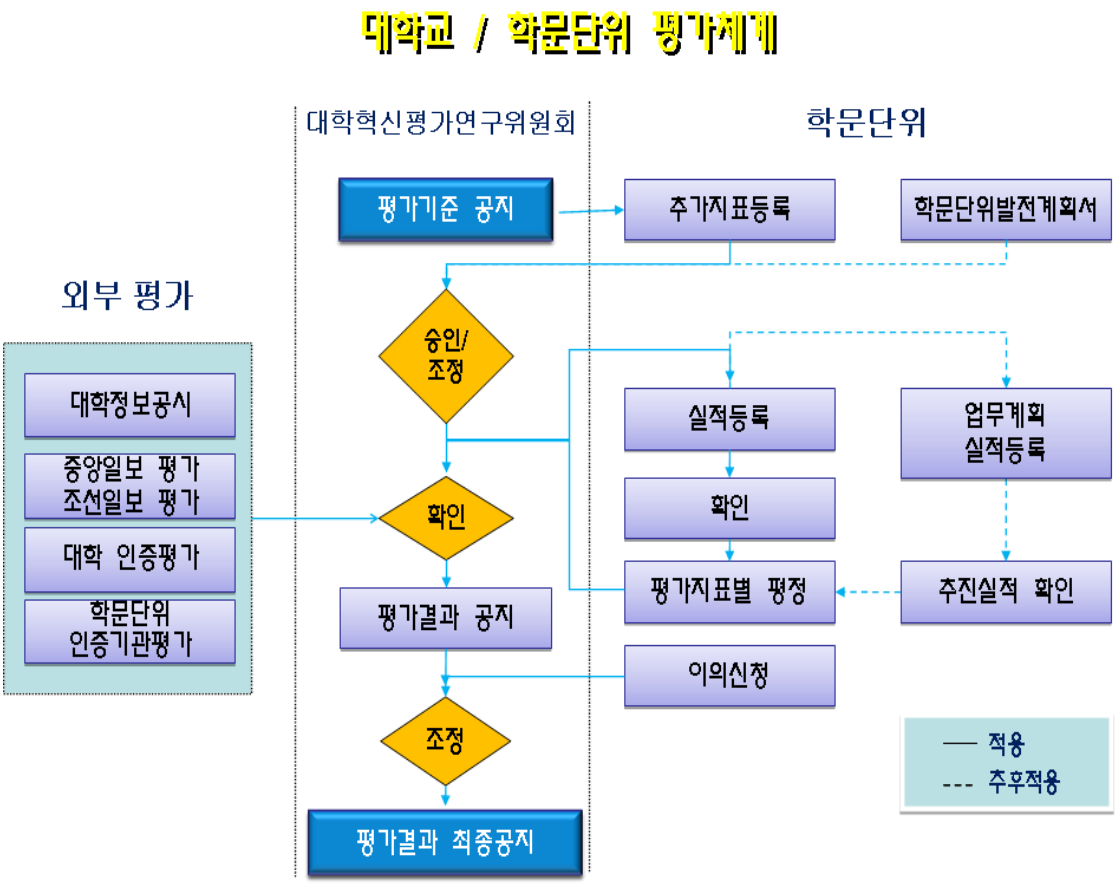
4) 평가주관부서 : 기획조정처 전략평가팀

○ 대학의 중단기 발전계획 수립 : 중단기발전계획수립추진위원회

○ 대학자체평가기획위원회, 대학혁신평가연구위원회, 대학자체평가실무위원회 운영

○ 대학의 각종 평가전담 및 평가관련 업무의 총괄 지원

다. 추진체계



2. 평가시스템 및 모형

가. 대상 및 범위

2009년 학문단위 평가를 위한 계열군 편성표

계열군	대학	학 과(전공)	학과수
인문사회	문과대학	국어국문학과, 문예창작학과, 영어영문학전공, 아동영어학전공, 일어일문학과, 프랑스어문학전공, 독일어문학전공, 철학과, 문헌정보학과, 기독교학과, 사학과,	11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영어교육과, 교육학과, 역사교육과	4
	경상대학	경영학과, 회계학과, 무역학과, 경영정보학과, 중국통상전공, 경제전공, 비즈니스통계학과, 컨벤션경영학과	8
	법과대학	법학전공, 특허법학전공	2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 정치언론·국제학과, 도시부동산학과, 경찰행정학과, 사회복지학과, 아동복지학과	6
	린튼글로벌	린튼글로벌칼리지	1
	소 계		32
이학공학	사범대학	수학교육과	1
	이과대학	수학과, 광전자물리학과, 의류학과	3
	공과대학	컴퓨터공학과, 전자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 건축공학전공, 건축학전공, 건설시스템공학과, 산업경영공학과, 기계공학과, 멀티미디어공학전공, 미디어영상전공	10
	생명나노과학대학	생명과학과, 생명공학과, 식품영양학과, 화학과, 나노생명화학공학과, 신소재공학과	6
	소 계		20
예체능	사범대학	미술교육과	1
	이과대학	생활체육학과	1
	미술대학	디자인학과, 회화과, 예술문화학과	3
	소 계		5
총 계			57

나. 평가항목 및 지표

1) 대학관리지표 : 핵심관리지표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가지표
교육	전임교원	전임교원 확보율 및 1인당 학생 수
연구	연구역량	국내학술지 논문 게재 수
		교수1인당 SCI논문 게재 수
		교수1인당 SSCI, A&HCI논문 게재 수
학생	학생충원	중도포기율
		재학생 등록률
	장학금	장학금 수혜율
	학생진로	순수 취업률 (정규직 취업률)
	교육비	재학생1인당 교육비
국제화	국제화	영어강의 진행 강좌 비율
		외국인전임교원 비율
		학위과정 외국인학생 비율
		해외파견 교환학생 비율
산학협력	산학협력	국내외 특허출원 및 등록 실적
		기술이전 건수
		기술이전 수입료

2) 학문단위 평가지표

가) 학문단위별 평가지표 가중치 대비 실점수

평가영역	평 가 지 표	가중치			실 점수					
		인문사회	이학공학	예체능	인문사회		이학공학		예체능	
					최고	최저	최고	최저	최고	최저
교육	발전계획의 목표 및 전략의 체계성 및 타당성 - 특성화(경쟁력강화프로그램)계획의 타당성 및 실적 -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	5	5	5	25	5	25	5	25	5
	교육목표 달성을 위한 교육과정 개선 실적	3	3	3	15	3	15	3	15	3
	강의평가 결과와 결과활용의 적절성	-	-	-	-	-	-	-	-	-
	교수법 개선을 위한 노력의 정도	2	2	2	10	2	10	2	10	2
	휴강 및 보강관리 체제의 적절성	-	-	-	-	-	-	-	-	-
	전임교원 확보율 및 1인당 학생수	8	8	8	40	8	40	8	40	8
	전공과목의 전임교원 강의 비율	3	3	3	15	3	15	3	15	3
		21	21	21	105	21	105	21	105	21

평가 영역	평 가 지 표	가중치			실 점수					
		인문사회	이학공학	예체능	인문사회		이학공학		예체능	
					최고	최저	최고	최저	최고	최저
연구	국내학술지 논문게재 수	8	7	11	40	8	35	7	55	11
	교수당 저·역서 수	5	2	8	25	5	10	2	40	8
	교수1인당 SCI논문 게재 수	-	13	-	-	-	65	13	-	-
	교수1인당 SCI논문 피인용 수	-	-	-	-	-	-	-	-	-
	교수1인당 SSCI, A&HCI눈문 게재 수	9	-	3	45	9	-	-	15	3
	교수1인당 SSCI, A&HCI눈문 피인용 수	-	-	-	-	-	-	-	-	-
	최근5년간 SCI, SSCI, A&HCI논문 피인용 수	-	-	-	-	-	-	-	-	-
	교수1인당 교내연구비 수혜액	3	3	3	15	3	15	3	15	3
	교수1인당 교외연구비 유치액	3	3	3	15	3	15	3	15	3
		28	28	28	140	28	140	28	140	28
학생	재학생 만족도 조사	-	-	-	-	-	-	-	-	-
	지도교수의 학생상담 실적	-	-	-	-	-	-	-	-	-
	중도포기율	5	3	5	25	5	15	3	25	5
	순수 취업률 (정규직 취업률)	15	15	15	75	15	75	15	75	15
	장학금 수혜율	10	10	10	50	10	50	10	50	10
	외부 장학금 유치액	5	5	5	25	5	25	5	25	5
	신입생 충원율	5	5	5	25	5	25	5	25	5
	재학생 등록률	7	7	7	35	7	35	7	35	7
		47	45	47	235	47	225	45	235	47
국제화	영어강의 진행 강좌 비율	1	1	1	5	1	5	1	5	1
	외국인 전임교원 비율	1	1	1	5	1	5	1	5	1
	학위과정 외국인학생 비율	-	-	-	-	-	-	-	-	-
	해외파견교환학생 비율	-	-	-	-	-	-	-	-	-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교류 현황	-	-	-	-	-	-	-	-	-
		2	2	2	10	2	10	2	10	2
산학협력	산학연관 교류 실적	2	2	2	10	2	10	2	10	2
	국내외 특허 출원 및 등록 실적	-	1	-	-	-	5	1	-	-
	기술이전 실적 및 수입료	-	1	-	-	-	5	1	-	-
		2	4	2	10	2	20	4	10	2
총 점		100	100	100	500	100	500	100	500	100

Ⅲ. 자체평가 결과

1. 총 평

가. 대학관리지표(핵심관리지표)

교육영역은 전임교원 확보율과 교원 1인당 학생수 부문으로 평가하였다. 전임교원 확보율은 2007년 54.3%에서 2009년 56.7%로 향상되고 있으며, 교원 1인당 학생수도 2007년 41.5명에서 2009년 40.1명으로 점차 개선되고 있다.

연구영역은 교원 1인당 국내학술지 논문 게재수와 국제학술지 게재수 부문으로 나누어 평가하였다. 교원 1인당 국내학술지 논문 게재수는 2006년 0.58편에서 2008년 0.62편으로 향상되었으나, 국제 학술지 논문 게재수는 2006년 0.20편에서 2008년 0.14편으로 약간 감소하였다. 2006년 대비 2008년 교원수가 증가하였음에도 논문 게재수가 감소한 원인은 인문사회계 중심의 교원을 초빙했음을 알 수 있다.

학생영역은 중도포기율, 재학생 등록률, 장학금 수혜율, 순수취업률, 재학생 1인당 교육비 부문으로 나누어 평가하였다. 중도포기율은 2006년 5.13%에서 2008년 4.64%로 낮아졌고, 재학생 등록률은 2007년 91.2%에서 2009년 95.4%로 대폭 증가하였으며, 장학금 수혜율은 2006년 43%에서 2008년 48%로 대폭 증가하였다. 이것은 교육여건이 점차 개선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순수 취업률은 2007년 78%에서 2009년 67.6%로 크게 감소하였고, 학생 1인당 교육비는 2006년 6,454.99천원에서 2007년 6,451.17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극심한 취업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취업지원 시스템 구축과 노력이 필요하고, 학생 중심의 교육투자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국제화영역은 영어강의 진행 강좌 비율, 외국인 전임교원 비율, 학위과정 외국인 학생 비율, 해외파견 교환학생 비율 부문으로 나누어 평가하였다. 영어강의 진행 강좌 비율은 2006년 3.48%에서 2008년 5.30%로 대폭 증가하였고, 외국인 전임교원 비율은 2006년 7.34%에서 2008년 8.06%로 증가하였으며, 학위과정 외국인 학생 비율은 2007년 0.24%에서 2009년 0.98%로 대폭 증가하였다. 또한, 해외파견 교환학생 비율은 2006년 1.01%에서 2008년 1.26%로 증가하였나 균형있는 국제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자매대학을 중심으로 정규학점의 이수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산학협력영역은 교원 1인당 국내외 특허출원 및 등록실적, 기술이전 건수 및 수입료 부문으로 평가하였다. 국내외 특허출원 및 등록실적은 2006년 0.09건에서 2008년 0.07건으로 약간 감소하였고, 기술이전 건수 및 수입료는 실적이 너무 저조하여 의미가 없었다. 산학협력은 교수 연구 및 학생 취업과

연계되므로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조성과 지원이 필요하다.

나. 학문단위 평가지표

우리 대학은 치열해지고 있는 대학 간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향후 대학 발전의 아젠다를 수립하기 위해 대학혁신평가연구위원회를 주체로 하여 대학자체평가를 실시하였다. 대학혁신평가연구위원회에서는 대학의 비전, 전략, 경영방침을 실행하기 위한 대학관리지표(핵심지표)를 우선 선정하였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 학문단위 평가에 대한 공통지표를 Top-Down 방식으로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하였다.

또한, 대학교육의 주고객인 재학생들의 교육 만족도를 평가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부총장(위원장), 대학원장, 기획조정처장, 교무연구처장, 자체평가위원장, 대학혁신평가연구위원장, 전략평가팀장 등 11인으로 구성되는 대학자체평가기획위원회는 자체평가위원회(2009년에 한해 대학혁신평가연구위원회에서 겸함)에서 제출한 대학자체평가 결과 보고서를 심의한 후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고, 우수 학과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을 제의하도록 하였다.

학문단위별 평가는 교육, 연구, 학생, 국제화, 산학협력 등 5개의 평가영역으로 구분하였고, 각각의 평가영역에는 2개에서 6개까지의 평가지표가 활용되었다. 특히 57개 학과를 인문사회(32개 학과), 이학공학(20개 학과), 예체능(5개 학과) 등 3개의 계열로 구분하여 계열에 따른 특성을 평가에 반영하였다. 이를 위해 몇 가지 평가지표에 한하여 계열별로 다른 가중치를 적용하였다.

재학생의 교육만족도를 평가하기 위해 2009년 5월에 한남대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과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설문내용은 교육과정 특성화 및 수업 분야(6문항), 교육과정 개선 분야(3문항), 취업 분야(3문항), 장학금 분야(2문항), 국제화 분야(3문항), 산・학・연・관 연계 분야(2문항) 등 총 6개 영역으로 구성되었다.

2. 학문단위 평가 영역별 결과

가. 특성화 분야

교육영역(21점)의 “특성화 발전계획의 목표 및 전략(5점)” 분야는 정량지표로서 4개의 세부 평가지표로 구성되었으며, 평가결과 부문별로 70점대(100점 기준)의 점수 분포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과정의 특성화에 대한 학생 만족도 조사와 관련해서는 린튼글로벌칼리지가 가장 높게 나타나 특성화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정책적인 시사점을 제시해 주고 있다.

그러나 이번 평가에서는 최초의 학문단위 평가라는 이유로 인해 대부분 학과에서 제출된 자료내용이 본 지표의 평가기준과 무관하고, 자료작성의 충실성도 부족하여 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향후 특성화분야의 평가점수를 높이고 실질적인 특성화 교육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요구된다.

○ 특성화 분위기 확산 노력 및 재정지원 강화

○ 특성화 교육 강화를 위한 관련 행정부서간 협력 강화

○ 객관적인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수립 필요

○ 관련 평가지표와의 연계성 강화

나. 교육·수업분야

교육·수업 분야의 학과별 평가는 총 9가지의 세부 평가지표를 통해 평가하였으며 최고점 105점, 최저점 21점 척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평균이 73.29점이었다. 이는 100점 환산점수로 변환했을 때 62.25점에 해당하는 값으로써 학과 차원에서 좀 더 체계적인 노력이 요구됨을 시사 받을 수 있다.

계열별로 살펴보면 이학공학 계열이 76.24점으로 가장 높았고 인문사회 계열(74.05점), 예체능 계열(56.66점)이 그 뒤를 따랐다. 단과대학별로 살펴보면 법과대학이 87.30으로 가장 높았고, 린튼글로벌칼리지(83.20점), 사범대학(80.55점)의 순이었다. 이에 비해 미술대학, 경상대학, 사회과학대학의 점수는 다소 낮음을 알 수 있었다.

평가지표별로 살펴보면 전공과목의 전임교원 강의 비율이 가장 미흡하였고, 전임교원 확보율,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 교수법 개선을 위한 노력의 정도 등도 다소 낮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교육·수업 분야의 재학생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 교육과정 특성화 및 수업 분야 6문항, 교육과정 개선 분야 3문항으로 평가하였다. 그 결과, 교육과정 특성화 및 수업 분야의 학과 만족도가 가장 높은 단과대학은 린튼글로벌칼리지였고, 이과대학, 사범대학, 공과대학, 사회과학대학 등이 그 뒤를 따랐다. 이에 비해 미술대학과 이부대학의 만족도는 매우 낮았다.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교육과정 특성화 및 수업 분야의 학과 만족도가 더 높았다.

학과별로 살펴보면, 가장 만족도가 높은 학과는 **학과였고, **학과, **학과 등이 그 뒤를 따랐다. 이에 비해 **학과와 **학과의 만족도는 매우 낮았다. 교육과정 개선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은 단과대학은 공과대학이었고,

이과대학, 린튼글로벌칼리지, 사회과학대학 등이 그 뒤를 따랐다. 이에 비해 미술대학과 이부대학의 만족도는 매우 낮았다.

학과별로 살펴보면, 가장 만족도가 높은 학과는 **학과였고, **학과, **학과 등이 그 뒤를 따랐다. 이에 비해 **학과와 **학과의 만족도는 매우 낮았다.

교육·수업 분야의 평가점수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요구된다.

○ 교육과정의 학과 특성화 반영에 대한 노력

○ 교육과정 개선에 대한 노력

○ 교육의 수월성 제고

다. 입시·취업분야

1) 입시분야

2009 학문단위평가에서 신입생 등록률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총점 500점 가운데 25점이었다. 평가결과 신입생 등록률은 전체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일부 학과의 충원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앞으로 신입생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요구된다. 충원율이 높은 학과는 **학과, **학과, **학과, **학과, **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화학과, **학과, **학과 등인데 이들 학과들은 모두 25점을 얻었다.

반면 충원율이 가장 낮은 학과는 **학전공(15.5점)과 **학과(15.5점)로 나타났다. 그 뒤를 이어 **학과(16.5점), **전공(17.0점), **학과(17.5점) 등의 순으로 신입생 등록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입생 등록률의 평가점수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요구된다.

○ 지역 특성에 바탕을 둔 입시정책

○ 다양한 입시정책 개발

2) 취업분야

2009 학문단위평가에서 취업률은 정규직 취업률과 순수 취업률로 구분하여 실시하였는데, 전체 총점 500점에서 취업률이 차지하는 비중은 75점이었다. 이를 세분하면 정규직 취업률이 50점, 그리고 순수취업률 25점이었다. 이번 평가에서 아직 졸업생이 없는 신설학과인 아동영어학전공, 수학교육과, 미디어영상전공, 예술문화학과는 제외되었다.

평가결과 각종 대외적 대학평가의 주요 지표가운데 하나인 정규직 취업률

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직 취업률이 가장 높은 학과는 **학과(47.0점)로 나타났다. 그 뒤를 이어 **학과(41.0점), **학과(36.0점), **학과(35.0점), **학과(35.0점)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취업률이 가장 낮은 학과는 사범대학의 학과들로 나타났다. 그 원인으로는 이들 학과의 졸업생들이 대부분 교직 시험을 준비하고 다른 직종에서의 취업을 고려하지 않고 있으나 졸업생들의 교직시험 합격률이 낮기 때문이다. 그리고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등의 학과도 최하위 점수를 얻어 정규직 취업률이 매우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순수 취업률은 정규직 취업률보다 조금 높지만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순수 취업률이 가장 높은 학과는 **학과(25.0점), **학과(25.0점), 그리고 **학전공(25.0점)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 **학과(24.5점), **학과(22.5점), **학과(22.5점) 등의 순으로 순수 취업률이 높았다.

반면 순수 취업률이 가장 낮은 학과는 **학과(8.5점)로 나타났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 **학과(9.5점), **학과(12.0점), **학과(13.0점), **과(13.0점)의 순으로 낮게 나타났다.

취업률의 평가점수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요구된다.

- ○ 취업관련 정보의 통합화와 계량화
- ○ 취업 교육프로그램의 이원화된 운영 체제(정규 교육과정과 비정규 교육 프로그램)
- ○ 취업관련 행·재정 지원 강화

라. 교수·연구 분야

교수·연구영역은 총 8가지의 세부 평가지표를 통해 평가하였으며, 최고점은 140점, 최저점은 28점이다. 전체 3개 계열별 교수 연구영역 평균은 예체능이 66.76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자연계열 (61.89점)과 인문사회계열 (55.30점) 순으로 평가되었다.

전체 10개 단과대학 중 교수·연구영역 평균은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생명나노과학이 69.15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이과대학 (68.65점)과 법학대학(64.75점)이 그 뒤를 따랐다.

반면에 린튼글로벌칼리지 (34.0점), 경상대학(52.70점), 사범대학(53.53점)은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었다.

전체 57개 학과의 개별평가에서 **학과가 99.5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학과(93.1점)와 **학과(93.0점)가 그 뒤를 따랐다. **학과(34.0점), **학과(36.0

점) 및 **학과(42.0점)는 비교적 낮은 점수로 평가되었는데, 최근에 신설되었거나 교수자원의 상대적 부족이 그 원인인 것으로 판단된다.

산학협력영역은 총 3개 지표를 평가하였다. 국내·외 특허 및 기술이전 실적 등이 매우 낮게 평가되어, 산학연관 협력 영역은 교수 연구영역과 더불어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다.

특히 교육과학기술부를 비롯한 정부기관의 대학평가에서 산학연 교류실적 및 그 성과에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표상향을 위한 전략적 접근이 요구되며, 이학 및 공학 계열 뿐 아니라 학문적 상호관계성이 비교적 낮다고 여겨지는 인문사회계를 비롯한 예체능계열도 적극적 협력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교육·연구영역의 평가점수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요구된다.

- ㅇ 교수의 연구업적 평가의 현실화 및 연구장려 정책 조기 시행
- ㅇ SCI급 논문에 대한 인센티브 추가보완
- ㅇ SCI급 논문에 대한 기여도가 높은 교수를 격려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

마. 국제화분야

1) 국제화분야의 가중치

- ㅇ 학문단위 평가에서 국제화 분야의 가중치 비중은 2%에 불과하다. 중앙일보에서 실시하는 평가의 가중치(2007)가 17.5%이며 교과부의 교육역량강화 사업에서도 5%의 가중치를 보이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차년도부터는 국제화 분야에 적용되는 가중치를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
- ㅇ 외국인 전임교원 비율에 대한 학과별 점수를 보면 LGC와 어문학 계열의 학과들은 전공의 특성상 해당 항목에서 만점을 받았다. 이는 타 학과들과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므로 향후 가중치 조정 혹은 별도의 평가체계 적용 등의 방법으로 이 문제를 시정할 필요가 있다.

2) 국제화분야의 학생만족도

- ㅇ 국제화 부분의 학생만족도 평가는 3개 문항 공히 영어강의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하였다. LGC 및 어문학 계열의 학과를 제외하고 분석한 결과, 국제화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는 외국인 전임교원의 비율

과는 별 관계가 없으며 영어강좌 비율과는 예상보다 약한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인 **학과의 경우 영어강좌 비율도 높은 편이나, **학과의 경우는 외국인 교원 비율 및 영어강좌 비율 공히 최고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국제화에 대한 만족도는 중하 정도에 그치고 있다. 이는 강좌의 품질, 난이도, 전체적 만족도 등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측되며 이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해 보인다.

3) 외국인 교원 충원율

○ 금번 평가에 포함된 두 지표 중 영어강의에 대해서는 학교당국이 행정적 지원을 확대 해 가는 등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 교원의 확충에 관한 지원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외국인 교원의 비율은 전임교원 확보율 등 타 분야의 지표와도 밀접히 연관되어 있으므로 학교 전체적 차원에서 외국인 교원(특히 계약직)에 대한 초빙 절차, 급여, 정착에 대한 행정적 지원 체계를 정비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

바. 재정 분야

재정분야의 학과별 평가는 교내 장학금 수혜율, 1인당 교내 장학금, 외부 장학금 유치액 등 3가지의 세부 평가지표를 통해 평가하였다. 최고점 75점 최저점 15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평균이 48.61점이었다. 이는 100점 환산점수로 변환했을 때 64.81점에 해당하는 값으로써 학과 차원에서 좀 더 체계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할 수 있다.

계열별로 살펴보면 인문사회계열이 56.65점으로 가장 높았고, 예체능계열이 50.90점, 이학공학계열이 41.58점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단과대학별로 살펴보면, 린튼글로벌칼리지가 65.00점으로 가장 높았고, 사범대학(56.67점), 법과대학(56.50점), 사회과학대학(55.25점) 순이었다. 이에 비해 나노생명대학, 공과대학, 이과대학, 미술대학 등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평가지표별로 살펴보면 외부 장학금 유치액이 18.90점으로 가장 높았고, 교내 장학금 수혜율(15.45점), 1인당 교내 장학금(14.26점) 순으로 집계되었다.

재정분야의 평가점수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요구된다.

○ 교내 장학금 재원 확보

○ 외부 장학금 유치액 증대

Ⅵ. 평가활용 및 개선방향

1. 평가활용

자체평가 제도를 활성화하고, 평가체제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인센티브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므로 다음과 같은 인센티브를 지급하였다.

가. 대상학과 선정

- 평가 초기년도임을 감안하여 전체 57개 학과의 약 20%에 해당하는 10개 학과 선정
- 학문단위 평가에서 57개 학과의 총점에 대한 평균은 500점 만점의 274.6점이었고, 이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43.65점에 해당

  계열별로 살펴보면 인문사회 계열이 278.5점으로 가장 높았고, 이학공학 계열 272.4점, 예체능 계열 258.8점으로 나타났다. 계열에 따른 평균 점수의 차이는 계열별 가중치의 차이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그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점수 차이는 중요하지 않다고 본다.

계열별 학과수를 비율로 산출하여 인문사회 계열 6개 학과, 이학공학 계열 3개 학과, 예체능 계열 1개 학과를 우수학과로 선정하였다.

<표> 계열별 우수학과의 총점 및 순위

인문사회			이학공학			예체능		
학과	점수	순위	학과	점수	순위	학과	점수	순위
** 학과	332.1	1	** 학과	302.1	1	** 학과	301.5	1
** 학과	328.1	2	** 학과	294.5	2			
** 학과	324.6	3	** 학과	294.1	3			
** 학과	320.6	4						
** 학과	320.0	5						
** 학과	312.7	6						

나. 인센티브 지원액

각 학과의 학생수가 상이하지만 평가 초기년도임을 감안하여 학과당 500만원씩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였다.

다. 인센티브의 사용

학과단위의 자체평가는 그 시행의 목적에서도 제시한 바와 같이 학과단위에서 그 추진 동력을 얻을 수 있는 지표를 중심으로 시행하여 학생의 지도와 관리에 초점을 두고 시행하였다. 그러므로 인센티브의 사용 용도도 학생장학금 50%, 취업관련 특강 등의 활동에 25%를 사용하고, 학과 운영비 등으로 나머지 25%를 사용하도록 하였다.

2. 개선방향

가. 대학발전계획 및 전략

▣ 자체평가 추진방향과 목적의 적절성 학보

▣ 자체평가와 대학비전, 발전전략의 구체적 연계

○ 평가의 영역, 지표, 지표 산출방식과 평가기준 척도에 반영

○ 행·재정적 지원 방안 명료화

나. 평가 추진체계

▣ 위원회간 유기적 연결 체제 구축

▣ 평가지표에 따른 자료 수집절차 및 검증체계 구축

▣ 평가결과의 활용에 대한 추진체계 확보

다. 자체평가 모형에 대한 연구·검토의 필요성

▣ 전략맵의 구축 및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조직 구조적/행정적 체계 운영

▣ 핵심관리지표, 학문단위 관리지표, 일반 관리지표의 연계성 강화

▣ 우리대학의 교육내용과 특성,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정성적인 평가항목의 검토 필요성

라. 평가의 현실성, 타당성, 신뢰성, 활용성 확보 방안의 적절성

▣ 지표의 특성 혹은 피평가 단위의 특성에 따라 지표의 적용범위 재검토

▣ 평가에 따른 기준과 절차에 대한 재검토

▣ 목표 설정시 해당 평가지표의 특성 및 속성에 대한 재검토

▣ 학문단위 평가/행정단위 평가/ 교수·직원의 개인 성과평가와의 긴밀한 연계성 확보

▣ 평가지원을 위한 관련 규정의 개정 및 전산 시스템 구축